



오리온그룹,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후원

오리온그룹은 오리온재단을 통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2026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오리온재단' 김부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남상은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오리온그룹



효성, DMZ 생태 가꾸기 그룹 차원 확대

효성이 국립수목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함께 DMZ 및 접경지역 생태복원 협력을 그룹 차원으로 확대한다. (주)효성,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화학(주) 등 4개 회사는 지난 30일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국립수목원·상생협력재단과 'DMZ 및 접경지역 생태복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효성



Sh수협은행, 코림코신탁과 부동산금융 업무협약

Sh수협은행이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코림코자신신탁 본사에서 코림코자신신탁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Sh수협은행



카카오엔터, 창작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공식 출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창작재단이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열고 2026년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카카오창작재단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26대1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창작자와 대중을 잇는 역할을 수행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인사

◆우주항공청 ◇과장급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장 박성원 △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장 김응현 △항법통신위성프로그램장 이병선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 권지훈 △우주과학프로그램장 강현우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김기석 △항공소재부품프로그램장 최미진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이광병

부음

▲윤종길씨 별세, 윤철수(태안군 수산과 어업지도선선장)씨 부친상=31일, 보령 웅천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월2일 오전 8시20분, 장지 보령시도란공원. 041-931-3444

최태원 "복합 위기, AI 전환으로 도약 기회 삼아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중동 리스크·관세 불확실성 진단
"AI 전환 파도 올라 새 도약 나서야"

"복합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중동 리스크와 관세 불확실성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과도에 다시 한번 올라타면 지금의 상황은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생산·소비·투자가 4년 만에 모두 증가하고 수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사태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974년 1차 오일쇼크를 거론하며 "당시에도 에너지 수급 차질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배 기업인들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돌파했다"며 "그 실행력과 똑심이 오늘의 한국 경제를 만든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도 올해를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에 선배 상공인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대, AI 기반 제조 혁신을 이끈 기업인들이 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금

탑산업훈장은 접착 소재 국산화를 이끈 이성호 유니테크 회장,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기여한 이종훈 인천도시가스 회장, 산업용 정밀 공구 시장을 개척한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이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AI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한 송현중 SK하이닉스 사장과 자동차 부품 분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이끈 김재산 코리아에프티 대표가 받았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 엔진 핵심 부품 국산화를 이끈 정병기 계양정밀 대표와 첨단 소재 국산화 및 친환경 기술 개발을 주도한 김중섭 에코프로 에이치엔 대표에게 돌아갔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기아 EV9, 북미·유럽서 잇단 수상

EV9 GT, 독일 전기차 비교평가 1위
성능·충전 편의성·공간 활용 부각

기아의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이 북미와 유럽의 주요 자동차 어워드를 잇따라 수상하고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31일 기아에 따르면 EV9의 고성능 모델인 EV9 GT는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발트의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583점으로 1위에 올랐다. 경쟁차인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차 EX90(565점)보다 18점 앞섰다.

EV9 GT는 508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한 파워트레인과 800V 고전압 시스템의 우수한 충전 편의성, 넉넉한 공간 활용성 등이 강점이다.

EV9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6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서도 올해의 전동화 유틸리티 차량으로 선정됐다.

또 영국 자동차 매체 '왓 카'가 주관하는 '2026 왓 카 어워즈'에서는 최고의 7인승 전기 SUV로 선정됐다. 미국 시장에서는 카 앤 드라이버의 2026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중형 전기 SUV 부문 최고 모델로 선정된 바 있다. /양성준 기자 ysw@

IBK기업은행, 청소년 불법도박 차단 강화

서울경찰청 주관 릴레이 캠페인

IBK기업은행은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

여했다. 특히 캠페인 참여와 더불어 불법도박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불법도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금융·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민영은행장은 "앞으로도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금융범죄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유한양행, 전 사업장서 헌혈 캠페인 진행

임직원 71명 참여·헌혈증 기부 동참

유한양행은 혈액 수급난 해소와 암환자 지원을 위해 서울 대방동 본사를 비롯해 연구소, 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헌혈에는 총 71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캠페인 기간 동안 임직원들은 직접 헌혈에 참여할 뿐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기부함을 통해 헌혈증서

기부에도 적극 동참했다. 모인 헌혈증서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수혈이 절실한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되며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2008년부터 19년째 헌혈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해 현재까지 누적 참여 임직원 수는 약 2500명에 달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2026년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 6번째)이 진주 본사에서 열린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주요 후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진공, 윤리·인권경영 내실화 나선다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장 중심의 윤리 경영 정착과 인권 존중 문화 내실화를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31일 오후 중진공 진주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 윤리·인권경영위원회는 기관의 윤리·인권 관련 주요 의사결정 및 자문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장인 강석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2명과 외부 윤리·인권경영 전문가 4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공공 분야

전반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윤리·인권경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중진공의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위험요소 관리 체계 고도화,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 등이다.

특히, 청렴경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 접점 중심의 윤리경영을 일상 업무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통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채널 안내가이드 제작 등을 통해 신고 절차와 보호체계를 명확히 안내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최재호 "투명·공정, AI 혁신 이끌 것"

(유진기업 사장)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공식 취임

최재호 유진기업 사장(사진)이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재호 사장을 제2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최재호 회장은 레미콘 산업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업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협회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레미콘 업계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와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하며 두터운 신뢰를 얻어왔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업계 안팎에서 깊게 신뢰받고 책임있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공정 혁신을 통해 레미콘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